'글로벌 창구' 화순 약초시장서 신문물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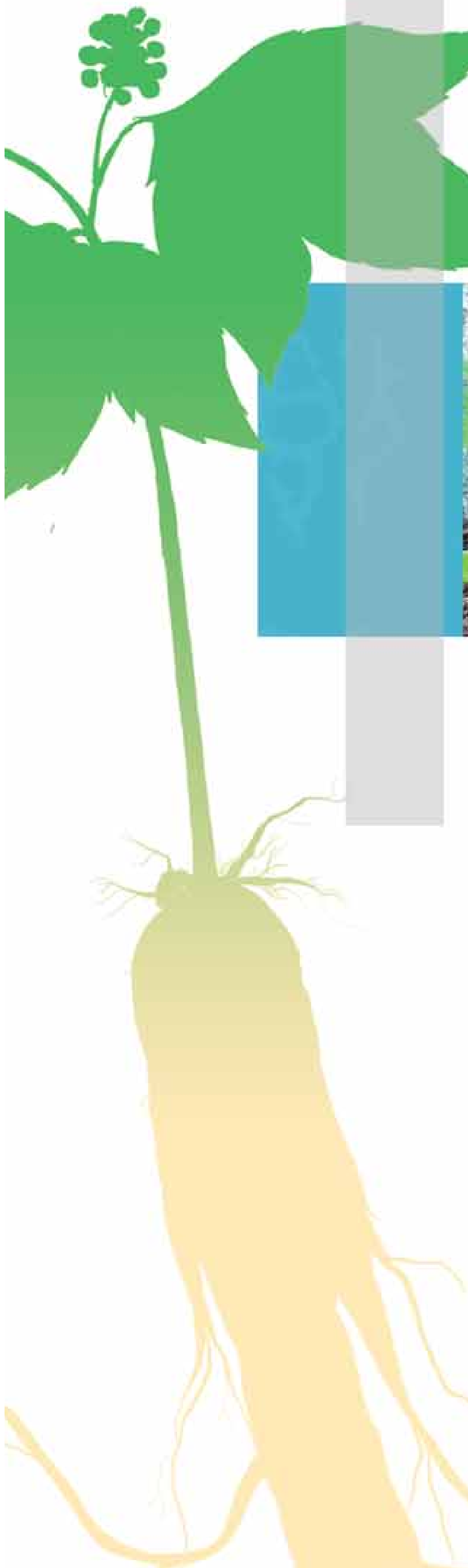
新湖南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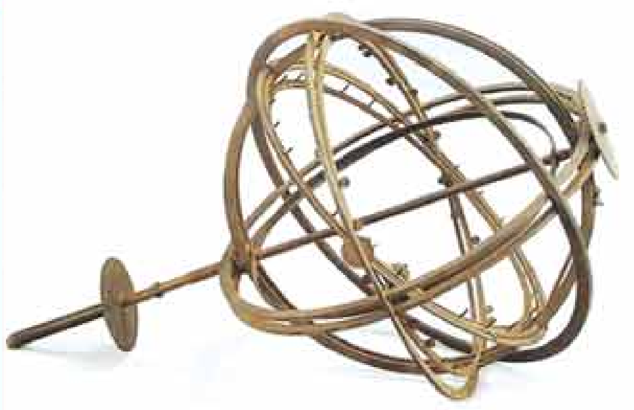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9〉

제3부-토종과 자연이 빚은 향토사

① 화순 동복삼, 실학을 낳다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도홍경이 쓴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백제의 산삼은 가늘고 견고하며, 약효는 장츠(長治·중국 산시성 남동부 도시)의 약용 인삼보다 낫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삼은 화순 동복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이후 동복 모후산에서 최초로 산양삼이 시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백제의 삼은 동복삼이라 칭하였고 조선시대까지 전파되었다. 동복삼은 조선시대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고 동복삼의 씨를 채집해 가정에서 재배하는 가삼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개성으로 전파되어 개성인삼의 명맥이 만들어졌다.





왼쪽부터 동복삼과 하백원의 자승차도해를 통해 제작된 자승차 모형, 나경적에 의해 제작된 홍대용의 혼천의.

임광철 조선대 초빙객원교수

동복삼, 조선 최고의 명삼 '우뚝'
백제시대 모후산서 산양삼 첫 재배
1800년대 개성 인삼 부흥 이끌어
화순 약초시장, 한-중 교류 요충지

동복에서 시작된 인삼재배는 1800년대경에 개성으로 전파되었는데 중국과의 무역으로 개성인삼이 부흥을 하게 된다. 이후 1900년대 초에 동복삼이 다시 활성화됐으나 일제 강점기 말에 서서히 인삼생산이 중단됐다.

동복삼의 발달은 동복지역의 약초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조선시대 시장은 대부분 5일장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로 인해 시장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필품 및 정보교환 및 수집 그리고 관공서의 홍보를 진행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5일장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방 수령이 중앙정부의 시책을 배포하거나 홍보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조선시대 전남지역 124개의 5일장 중에서 순천 쌍암장과 송광장, 장흥 유치장 그리고 광양 섬거장을 포함해 화순 이서장과 화순 중장터장에서만 약초를 취급했다. 특히 화순 이서장과 동복장에서는 약초 중 인삼을 취급하였는데 이는 약초를 취급하는 상인들의 왕래가 중국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약초를 취급하는 상인들의 또 다른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바로 정보와 책자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이다.

현대생활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정보도 손안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인편에 의한 정보전달 외에는 달리 새로운 정보와 책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 즉 장시의 발달은 그 지역의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화순 동복지역 약초시장의 발달은 한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청나라와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동복지역에 커다란 움직임이 생성된다. 조선말 근대화의 사상적 기틀을 완성하는 실학의 뿌리가 생성된 것이다.

1700년경 화순 동복 야사리에 석당 나경적이라는 인물이 은거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나경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거북선의 총괄 제작 책임자인 채암 나대용 장군의 후손으로 1690년부터 1762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화순 야사리에서 마을 일을 의논하는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제작 및 연구하고 있었다.

동복장에서 만난 실학자들
나경적, 홍대용 통해 기상 관측 '혼천의' 제작
하백원, 자명종·자동양수기 '자승차' 등 개발
적벽 유람 필수… 정약용 등 학자 발길 잇따라

나경적은 70세가 될 때까지 동복에서 서양식 자명종인 후종과 스스로 방아를 찧는 자전수차 등을 만들고 서양식 천문관측기구인 기형혼천의와 동양식 천문관측기구의 운영방식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순 적벽 유람을 온 담헌 홍대용이 28세에 나경적을 만나게 되고 홍대용의 아버지인 나주목사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수치적 계산과 제작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나경적과 함께 쇠로 만든 철제 혼천의를 만들게 된다.

이후 홍대용은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담헌서를 기록하고 연암 박지원과 북학파의 실학을 전개하는 거장이 된다. 홍대용은 여러 가지 문서에서 화순의 나경적을 최고실력의 과학자로 묘사하며 존경을 표한다.

석당 나경적 사후에 화순 동복 야사리에서 규남 하백원이 태어나게 된다. 하백원은 자라면서 나경적의 손자와 친구로 지내며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익힌다.

또한 근처 동복장과 이서장을 연동하는 약초상인들로부터 당대의 최신 과학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후 하백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국지도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보다 앞서서 동국지도를 만들고 자명종과 방적기 등을 제작하였으며 현대적 과학기술원리를 이용하여 물의 힘으로 스스로 물을 끌어올리는 자동양수기(자승차)를 설계하였다.

또한 하백원과 같은 시대에 중농학파의 실학정신을 완성한 다산 정약용은 17세에 동복 야사리를 거쳐 적벽을 관람한 후 화순 동림사에서 친형인 정약전과 머물며 책을 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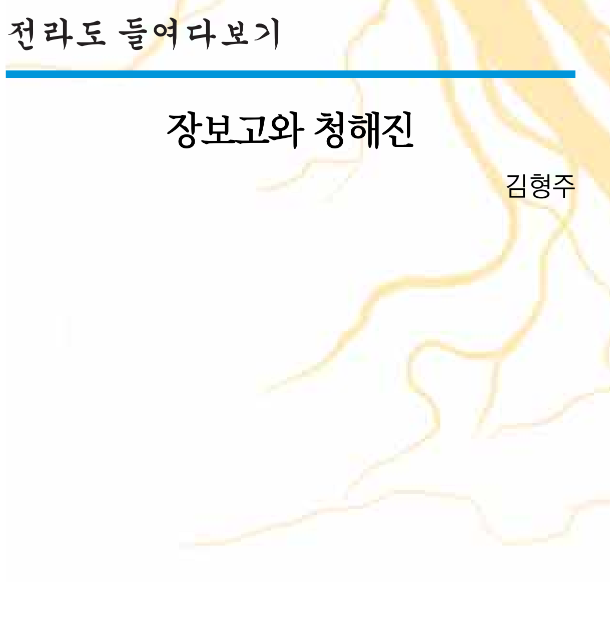
화순 동복 지역은 지금처럼 도로망과 교통이 원활한 시대에도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외지이다. 하물며 조선시대에는 왕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함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실학의 대 거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깨우치고 새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동복지역으로 모여드는 정보의 흐름과 그러한 정보의 유통이 이뤄지게 만든 요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화순 동복 지역의 인삼과 그 지역 5일장에서 취급하는 약초들에 의한 조선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의 왕래로 인해 외래 문물과 서적에 대한 취득이 이뤄졌으리라 여겨진다. 그와 더불어 화순 적벽유람은 당대의 필수 관람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젊은 학자들과 지도층들의 발길을 불러 새로운 학문 탄생의 기틀을 만들었다.

때문에 우리는 화순 동복 지역의 사료뿐만 아니라 화순이 지니고 있는 약초에 대한 역사 및 유통 경로에 의한 분석을 진행해 조선시대 정보 흐름이 장시의 유통으로 확대돼 시대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한 번 전라도의 가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사) 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원회 홍보본부장



전라도 들여다보기

장보고와 청해진

김형주

장보고는 신라시대 호남 서남해의 강력한 지방세력가로서 본명은 '활보', 즉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였다. 장보고라는 이름은 중국에 건너간 이후 현지생활에 적응하여 새로이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년기에 친구 정년(鄭年)과 함께 당나라에 가서 서주(徐州) 무령군(武寧軍)의 장교가 되어 지방군벌의 속성과 군대 통솔방법을 익혔다. 군인들 중에는 양주(揚州)·소주(蘇州) 등지 출신으로 신라와 일본을 내왕하며 국제무역에 종사하던 자들이 많아 그들로부터 상업적인 수완과 정보를 얻었다.

당시는 흉년이 빈번해 각지에서 도적이 횡행했고, 바다에서도 해적이 신라 해안에 출몰해 많은 주민을 잡아가서 중국에 노예로 팔았으며 무역선도 해적의 위협을 받았다. 장보고는 해적들이 무고한 신라인을 잡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했으며, 국제무역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해상권을 장악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볼 야망을 불태웠다.

마침내 그는 828년 귀국하여, 왕에게 남해의 해상교통의 요지인 완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황해의 무역로를 보호하고 해적을 근절시킬 것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는 조정의 승인아래 1만명 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독자적 지휘권을 가진 청해진(淸海鎭)을 건설하였다.

청해진은 완도 입구의 장도(將島·장군섬)에 위치한 통일신라 말기의 군사기지로 828년에 설치되었다가 851년에 철폐되었다. 이곳은 삼면의 조망이 확 트이고 수심이 깊어 선박의 통행이 용이하고 태풍을 피할 수도 있는 자연적 요새였다. 섬의 둘레에는 약 20㎝ 간격으로 목책(木柵)을 박아 외부 선박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장보고는 신라조정에서 내린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라는 직함으로 서남해 일대의 해상제해권을 장악하고 해적소탕과 함께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교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당시 격화된 신라조정의 왕위쟁탈전에서 패한 김우징 일파가 의탁하게 되었다. 희강왕이 피살되고 민애왕이 즉위하는 정변이 발생하자 김우징일파는 장보고 예하부대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해 신무왕으로 즉위했다.

장보고의 청해진 군사력이 더욱 강성해지자 이에 중앙귀족들은 위협을 느꼈다. 이 무렵 딸의 문성왕비 책봉문제를 둘러싼 장보고와 신라 왕실 간에 대립이 노골화되었고, 장보고는 846년 나라에서 거짓으로 베푼 축하연에서 신라조정이 자객으로 내려보낸 부하장수 염장(閻長)에게 무참히 피살되었다.

여기에서 '얄미운 행동으로 남의 화를 돋운다.'는 뜻을 가진 '염장 지른다'는 말이 유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철옹성 같던 청해진은 마침내 혁파되었고, 이 일대의 주민들은 벽골군(碧骨郡·전북 김제)으로 강제 이주를 당함으로써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영화로 끝났다.

장보고는 통일신라의 시기에 대외적으로 크게 활약한 외교가이며 해상 중계무역을 주도한 통상교역의 전문가이자 걸출한 지략을 가진 군사 전략가로서 높이 기려야 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